

現代哲學의 志向 生에서 實存의 길을 檢討함 [제6회]

金午星

야스펠스[야스퍼스]는 하이데켈[하이데거]이 實存을 現存在의 存在樣相으로 보는데 反하여 現存在와 對立해서 생각한다. 現存在는 人間의 經濟的 生命임에 反하여 實存은 現存在의 現象에 있어서는 存在하지 안흐나, 그러나 存在할 수 있는 또는 存在할 存在인 것이다. 現存在는 經驗的으로 주어진 生命인 것이나 實存은 對象으로서 存在한 것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思惟하며 行動하는 源泉인 것이다. 實存의 可能性에 依하여 우리는 살고 있으며, 實存의 現實에 依해서 우리는 우리 自身을 形成하는 것이다. 現存在는 時間的, 歷史的으로 制約되어 있으나, 實存은 時間的, 歷史的인 것 가운데서 選擇하면서 自由로히 自己를 實現하는 것으로 時間 가운데서 永遠에 向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永遠은 無時間的이 아니라, 時間의 深化이다. 可能的인 것을 選擇과 自由로서 決定해가는 것이 實存의 길이다.

人間은 現存으로서는 항상 一定한 狀況에 살고 있다. 狀況이란 우리가 거기에 依據하는 具體的 現實을 이룸이다. 이 狀況은 우리를 支配하며 또 우리에게 依하여 變化될 수 있다. 그러나 人間은 다른 狀況에 들어가지 안코는 이 狀況의 支配를 벗어나지 못한다. 現存으로의 人間은 이런 狀況 가운데서 鬪爭과 悲哀 없이 生存할 수 없으며, 避할 수 없는 責務, 줌 등을 할 수 없다. 이러한 鬪爭, 悲哀, 死, 責務 등을 그는 極限狀況이라 한다. 現存으로의 人間에게는 極限狀況은 最後的인 것이다. 現存에게는 極限狀況의 背後에는 아무 것도 보히지 안는다. 極限狀況의 □壁처럼 마주섯을 뿐이다. 現存은 이 極限과 衝突할 수밖에 없다. 허나 極限은 음쪽도 안는다. 現存은 눈을 감어 避하거나 그러치 안흐면 自己를 擴大함으로서 自己를 維持하려 한다. 여기서 現存으로의 人間은 自己를 實存대로 움긴다. 즉 極限狀況은 現存으로서는 免할 수 없음으로, 現存은 다시 눈을 떠서 그것을 벗어남으로 해서 可能的인 實存을 開明하지 안흐면 안되는 것이다.

實存의 開明은 現存을 超越함으로만 可能하다. 그러나 現存은 自己를 超越할 때 自己를 絶對의 孤獨에 빠트리게 된다. 大洋南의 孤島에서 荒波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孤獨에서 世界를 眺望하게 된다. 허나 孤獨이 最後는 아니다. 孤獨은 現存의 眼目이다. 現存은 孤獨에서 第一의 飛躍에 依하여 自己를 超越한다. 그리고 다시 第二飛躍에서 可能的인 實存을 開明하는 것이며, 第三飛躍에 依하여 哲學的 生命을 開明해가는 것이다.

哲學은 實存의 最高의 範疇에 屬한다. 哲學은 手段이나 魔法이 아니고, 人間이 世界 안에 들어가는 한 개의 意識이다. 哲學的 生活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지 안으면 안되는 命令이나 또는 理想型이 아니며 客觀的 妥當性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同一한 것이 될 수 없다. 哲學的 實存은 流星과 같이 어디서인지 또는 어디로인지 몰르게 人間存在를 貫流하여 落下되는 것이다. 個個人은 오직 『自己存在』의 跳躍에 依해서 그것과 함께 行進할 뿐이다.